

러시아와 한반도: 엘친시대

1. 엘친시대 대외정책의 전략개념 3시기로 구분

1) 1992년-1993년/94년 러시아 지도부의 외교정책에 있어 전략 개념은 “자유주의 이상(liberal ideas)”이었다. 이 사고는 고르바초프의 “신사고(new thinking)”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 이 시기에 러시아지도부의 전략 개념은 국내적으로 민주화와 국제적으로 서구와 거의 무조건적인 협력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되었다.

2) 1994년-1996년 러시아 외교 전략 개념은 “지정학적 현실주의(geopolitical realism)”로 변한다. 이 개념은 불간섭에 대한 규범방어와 국제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이었다.

3) 1996년-2000년 시기 러시아 외교 전략 개념은 관계의 다양화로 서구에 대해 균형과 미국에 대항한 반-동맹 구축을 시도했다.

2. 소련의 해체와 세계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러-북관계의 악화와 한국자본에 대한 관계에서 러시아의 지나친 기대의 집중을 동반했음. 민주주의 슬로건에 의존한 엘친지도부는 북한을 적으로 대하지는 않았지만 변화의 반대자로서 그리고 친구로서 아니라 미래가 없는 경제적 동반자로서 간주했음.

정치적 관계에서 러시아가 새롭게 얻은 국제 민주주의적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친구”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가치가 없는 동반자로서 보았음.

3. 고르바초프의 신사고의 약속들은 엘친에 의해 물려받음

신생 러시아 엘친대통령은 북한의 희생 속에서 한국과 협력을 가속화 시켜나갔음. 1980년대 고르바초프의 준-수정주의적인 소련정권과 달리, 외무장관 안드레이 코즈료프(Andrei Kozyrev)의 친서방주의 영향력이 여전히 매우 강할 때인, 1991년 12월과 1993년 11월 사이 짧은 2년 기간을 제외하고, 90년대 러시아는 대체로 아시아문제에 현상유지 세력이었음.

4. 엘친집권 초기 친서방주의

엘친은 러시아 극동의 발전을 위해 한국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여, 한국과 관계를 강화해 나갔다. 또한 영토문제로 일본이 제공할 의지가 없었던 재정과 투자를 한국대기업들이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엘친은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관심을 표시하기 위해 예고된 여행으로 1992년 11월 서울을 방문했지만, 그 결과는 미약했다.

비록 한국 경제지원과 투자가 모스크바가 기대했던 만큼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러시아는 한국에 무기이양을 통해 일부 소련이 빌린 차관을 갚을 수 있었다.

5. 엘친 집권 1기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주요관심

러시아의 개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막대한 투자와 재정 지원을 위한 잠재력과 관련이 있었음. 이 지역에서 일본 다음으로 선도 자본주의 경제국으로써 한국은 러시아 관계에서 일본처럼 관계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북방영토문제 같은 역사적 어려움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반대로 극동과 중앙아시아에서 소련내 고려인 인구는 관계개선을 위한 중요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요소일 수 있음. 30억 달러 한국 차관제공과 한국기업들이 러시아에 대한 투자와 기업 활동에 대한 확신은 러시아 기대를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였음.

그러나 러시아가 차관을 상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 준 것과 한국이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결여에 실망하게 됨으로써 러시아에 대한 한국의 관심은 줄어들었음.

6. 남북한에 대한 모스크바의 전략적 이해

새로운 전환점은 러시아 국내외의 변화들이 있는 후 1990년대 중반에 일어났다.

국내적으로, 체첸전쟁과 민족주의의 부상(1995년 12월 의회선거에서 공산좌파세력과 극우 민족주의세력들이 다수의석을 차지)이 있었다.

대외적으로 러시아와 서구간의 관계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의 동진 확대에 대한 계획들과 국가미사일방어체제의 창설 등이 있었다.

한반도에서는 1994년 핵에너지에 관한 미북간 합의와 북핵에 대한 4자회담(미중남북)의 구상(러시아의 참여제외)이었다.

첫째, 모스크바에서 북한의 반미 카드 활용을 여하튼 시도할 가능성을 보았다.

둘째, 러시아국내 더 적극적인 투자행위와 한반도문제에서 러시아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인정으로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바램에서 평양과 우호관계의 한두 가지 변수를 통해 서울을 압박할 가능성을 보았다.

한 결과로서, 남북한과의 “균형적인” 관계발전의 비공식 개념은 외교 서클에서 부상했음. 이것의 목표는 1990년대 전반기 북한과의 소원한 관계를 멈추는 것이 포함되었음. 서울과의 관계에서 평양과 균형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러시아의 이익이었음.

이것에 있어서, 러시아 정치엘리트들과 전문가 그룹은 남북한에 대해 실용주의적 이해에서 출발했음. 어느 누구도 진정한 경제동반자로 북한을 보지 않았음. 정치적 측면에서 러시아 엘리트 일부는 평양을 전체주의 적으로 간주. 비록 이미 경제적 동반자라는 이전의 지나친 기대가 없어졌지만, 한국은 잠재적 중요 국가로서 간주하기 시작함.

7. 엘친 집권 2기 대한반도 정책

집권2기 동북아에서 러시아 영향력 회복을 위해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은 균형과 관계의 다양화에 토대를 두었다.

- 엘친정부는 자신들의 관심에 한국을 제외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 반면에 러시아는 극동에 한국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효과적인 경제구조를 조성하기보다는 오히려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조치들과 무기판매라는 두 가지 방향을 추진했다.

8. 한반도 정책 재고

한반도 정책에 대한 재고 움직임

1) 1994년 6월 김영삼 대통령 방러 이후 양국은 소원한 관계로 전환

2) 1995년부터 러시아 내부에서 한반도 정책에서 한국중시에 따라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지렛대" 위치를 잃게 됐고, 한국으로부터도 대우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

3) 1996년 1월 예브게니 프리마코프외무장관 취임이후 "남북한 등거리 외교"를 표방하며 러북관계 복원태도 보임

4) 1998년 7월 상호외교관 상호 추방 사건은 양국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 수교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이함. 이 사건은 한-러 관계에 대한 서로의 관심을 촉발시키고 이를 재조명하도록 함으로써 수교 이후 양국관계에 내재하고 있던 거품과 허상을 제거하게 하는 한편 서로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관찰과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관계를 발전시키도록 하는 하나의 전기를 마련한 측면도 있었음.

9. 90년대 대한반도 정책 침체기

- 1997년 한국 경제위기

- 1998년 8월 러시아가 모라토리엄 선언

- 1998년 7월 상호 외교관 및 추방사건 발생으로 양국관계 수교 이후 최악의 상황 맞음

- 1999년 5월 김대중대통령 모스크바방문으로 양국관계의 재활성화를 도모.

그리고리 카라신 외무장관은 "러시아는 남북한 모두와 균형잡힌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의 이웃 국가로서 러시아는 모든 분야에서 남북한과 적극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관심" 나타냄.

10. 90년대 정책평가

지정학적 화해는 무겁게 진행되고 있었다. 한국투자과 경제관계는 기대했던 만큼 발전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처럼 무기판매와 방위협력의 강화는 이 기간에 볼 수 있었던 아마도 가장 지속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다. 이 시기 러시아의 실제적 무기 이양정책은 북한보

다 한국에서 활발하게 이뤄졌다.

엘친시기 남북한간 계속된 긴장들로 인해 러시아 정책의 결과들은 남북 양쪽에 균형적 일 수 없었다. 일부 지그재그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북한보다 한국에 더 성과를 얻었다.

Yeltsin's years in the 1990s: Russia and the Korean Peninsula

1. The break-up of the USSR

The collapse of the USSR was accompanied by a worsening of relation between Moscow and Pyongyang.

As a result of the break-up of the USSR, economic and military ties of Russia with North Korea fell to nothing.

The disappointment of Yeltsin's Kremlin was the fact that Pyongyang maintained active ties with the communist opposition to the Yeltsin regime.

2. Russia-South Korean Ties

Disappointment was mounting over the fact that the economic partnership that had formed earlier was not bringing the expected results.

Moscow blamed Seoul for inactive investing in the Russian economy.

Seoul cited the bad conditions for foreign business in Russia.

3. A new turning point in the mid-1990s

A new turning point in strategic perceptions in Moscow of North and South Korea occurred in the mid-1990s following changes inside Russia:

1) the Chechen War, the rise of nationalism.

2) plans for the expansion of NATO and the EU to the East, creation of a national missile defense system.

3) on the Korean peninsula, th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on nuclear energy in 1994, the idea of four-party talks on Korea.

4. Yeltsin's second presidency

Russian foreign policy became more articulate in pursuit of national interests.

Foreign Minister Yevgeny Primakov's formulation of multipolarity may best represent Russian strategic thinking of this period, incorporated Russian national interests in dealing with both the West and the East.

5. Parallel Policy

"parallel" development of relations with North and South Korea emerged in diplomatic circles.

Its goal consisted of somehow putting a stop to the decline in relations with the North of the first half of the 1990s.

Russian political and expert elites started from a pragmatic perception of the North and the South.

6. Relations with North Korea

Russia's humiliation reached its peak when the four-party talks were proposed by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in the spring of 1996 to discuss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o the exclusion of Russia.

7. Relations with South Korea

Russia's main interest in South Korea was associated with the potential for huge investment and financial assistance to be directed to Russia's reform.

Political steps to boost the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and selling weapons became the two directions taken by Moscow.

8. Change in Russian Foreign Policy

Most members of the foreign policy elite decided that Russia must move closer to more traditional realist policies.

Korea was recognized as a sensitive place for Russian national security.

Therefore, by 1996 the Korean peninsula had become a symbol of the urgency of change in Russian foreign policy in order to restore Russian influence in Northeast Asia.